

中央種苗(株) 育種연구소

더 맛 좋고 영양가 있는 種苗의 개량육성 拍車

中央種苗(株) 育種연구소의 역사는 1955년 경남 양산군 물금면에 13,000평 규모인 한국 최초의 민간 육종연구농장을 창설한 때부터 시작됐다.

이어 1960년에는 김해군 가락면에 14,600평 규모의 국내 최대인 민간 육종연구농장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종묘의 육종연구에 돌입했다는 것. 1972년, 김해군 기장면 내리에 10,200평 규모의 육종연구 제2농장을 개장하였으며, 1982년에 대지 3,400평, 건평 816

1955년 13,000평규모 한국 최초 민간육종연구농장 창설

평 규모의 오산육종연구농장을 신설했고, 1986년에는 오산 육종연구농장 및 부산 지장 연구농장을 오산육종연구소와 부산 육종연구소로 명칭을 개정하여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한 육종연구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연구소의 배경으로 母企業인 중앙종묘(주)는 1946년 부산에서 중앙종묘상회로 출발, 1953년에는 중앙종묘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1956년에 국내 종묘계에서는 최초로 농업기술 월간지 「새농사」를 창간

하고, 1959년 본사를 서울 종로5가로 옮겼으며, 1975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 사옥을 신축이전하였다.

이제 국내 굴지의 종묘회사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만큼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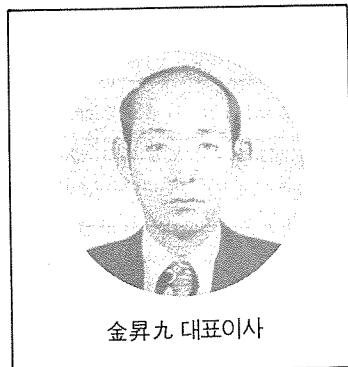
한편 중앙종묘(주)는 새로운 농사기술보급을 위한 사업과 농산종자, 묘목, 화훼, 구조의 육종생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여 적절한 농업약제 선발은 물론 농업

기계 및 농자재의 이용성 검토 등도 목적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종묘(주)의 육종연구 실적을 살펴보자.

중앙종묘(주)는 배추, 양배추, 파, 양파, 고추, 오이, 수박, 토마토, 참외, 시금치, 당근류, 호박, 딸기, 메론 등의 육종에 주력하였다.

▲ 배추는 1962년에 청경중생 및 삼전중생배추의 육성으로부터 1987년 청하배추 육성에 이르기까지 풍추조생·왕관·대형가락·삼진·고



金昇九 대표이사

냉지여름배추 등 40여종을 육성하였다.

▲ 무우는 1970년 조생대형 봄무우의 육성으로부터 1987년 오순 및 승동무우에 이르기까지 신진주·대형추석·초봄알타리·고냉지·춘하·진록·매봉무우 등 23종을 육성해왔다.

▲ 고추는 1975년 가락김장2호 고추의 육성으로부터 1986년 한솔·기호고추 육성에 이르기까지 킹건·파리·진술·새봄 및 가람꽃고추 등 13종을 육성하였다.

▲ 오이는 1981년 여름 재배용 품미오이의 육성으로부터 1987년 설록청강오이에 이르기까지 역대 재배용 장일가락1호·가락만춘·선미백다다기·반백오이 등 9종을 육성하였다.

▲ 수박은 1980년 춘왕수박의 육성으로부터 1987년 하보수박육성에 이르기까지 창해·금베계1호·하우스일품수박 등 6종을 육성하였다.

▲ 토마토는 1976년 만수조생·만수대형·대풍대형·내병장수·복수2호·대형복수·강육토마토 등의 육성으로부터 1981년 광수토마토에 이르기까지 8종을 육성하였다.

▲ 참외는 1981, 조생신은천참외 육성발표로부터 1984년 새봄향참외, 1986년 금나라참외 등 3종을 육성발표하였다.

▲ 파 및 양파는 1976년 풍년쌍대파의 개량육성으로부터 1985년 설장 한대파, 1986년 황보석양파 육성에 이르기까지 석창외대파·금장외대파·대파·구조파·서울백파·금정조생 및 천주황양파 등을 개량육성하는 한편 배추큰파·조생풍옥황양파 등을 육성하였다.

▲ 당근류는 1976년 봄5촌당근 및 대풍5촌당근 육성으로부터 1984년 홍미5촌당근 육성에 이르기까지 조춘5촌당근·풍산5촌당근 등 5종을 육성하였다.

▲ 호박은 1961년 주치니호박 육성으로부터 1977년 밤호박에 이르기까지 춘양극조생·춘원조생 및 록보조생뽕호박 등 7종을 육성하였다.

▲ 시금치는 1979년 입추가락시금치의 육성으로부터 1984년 환립해동·청명시금치, 1987년 대풍·입하시금치 등 5종을 육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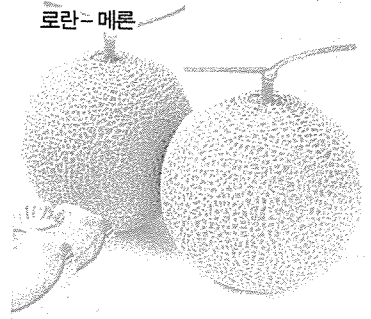
▲ 가지는 조생대장가지·대장가지·진주장가지·가락장가지·흑진주장가지 등 5종을 육성하였다.

▲ 메론은 감천 1, 2, 3호메론

을 비롯 홍학메론 등 2종을 육성하였다.

이외에 딸기의 무균묘를 개량육성하는 한편, 피만 등을 육성하여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메론은 국내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기호변화와 대중화에 따라 유망 종묘로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외국의 메론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맛과 질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높을 것



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에 의한 국가발전이라는 편중정책으로 인하여 타 산업의 그들에 가려져왔

國民保健향상과 輸出에도 한몫할 계획

으로 전망되는 품종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 『메론과 피만을 비롯 무균·내병성의 딸기를 개량 육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중앙종묘(주)는 현재 일본등 동남아를 비롯 사우디 등 중동지역과 파키스탄에 기술수출과 현지재배로 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을 비롯 유럽에까지 진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농업은 우리산업의 근본으로써 그 기능을 다해왔으나 최근에 와

다.

그러나 자원으로서의 인력자원과 농업자원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 농업도 수출산업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는것.

중앙종묘(주)육종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배양을 통해 종묘를 개량 육성하는 한편 종묘의 개량 육성을 위한 연구를 보다 더 계획적·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데 방침을 세우고 수출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한다.

육종연구농장 및 연구소 전경

